

쇠꽃

정길연 지음 | 문이당 | 298쪽 | 값 9,000원

여성을 둘러싼 현실을 진지하게 묘사해 온 작가 정길연의 세 번째 소설집이다. 이번 소설집에서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항 대립적 세계관의 경계에 머물지 않고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진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박석무 지음 | 한길사 | 558쪽 | 값 17,000원

다산의 시대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대기로 정약용이 이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그가 이룩한 진보적·실용적 학문, 그 희망과 꿈의 세계와 만날 수 있다.

세종, 그가 조선이다

이한우 지음 | 동방미디어 | 404쪽 | 값 14,500원

청년 세종에 관한 책이다. 인간 세종의 삶을 '조선왕조실록'을 따라가며 새롭게 구성한 다큐멘터리 보고서. '생생한 CEO' 세종의 육성을 통해 조선 500년 역사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원효 철학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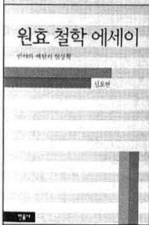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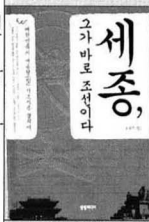
신오현 지음 | 민음사 | 416쪽 | 값 20,000원

인간의 본질을 실존으로 보고, 서양철학의 의식이론을 동양철학, 특히 불가철학의 사유체계에서 의존해서 극복하고자 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오인환 지음 | 열린책들 | 548쪽 | 값 18,000원

조선왕조의 정치사를 '위기관리'라는 시각으로 조명하여, 현재의 정치 현실의 대안을 찾고 있다. 문민정부 때 5년간 장관을 지낸 저자는 정치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과도는 잡들지 않는다

조현웅 지음 | 창비 | 296쪽 | 값 8,000원

199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조현웅의 첫 소설집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여덟 편의 중단편 소설을 묶었다. 서글프게 변해 버린 새만금 사람들의 현재 모습과 풍경을 통해 우리시대의 실제적인 바다와 그 안으로 침투한 근대성을 보여준다.

반 고희, 죽음의 비밀

문국진 지음 | 예담 | 324쪽 | 값 1,3500원

고흐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600여 점의 그림과 800여 통의 편지를 법의학자의 눈으로 분석하여 진실을 파헤쳤다. 그림 속에 드러나 있는 고흐의 감정, 생각, 심리를 추리소설 형식으로 분석하여 명화를 보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서윤영 지음 | 굿리 | 290쪽 | 값 12,000원

집을 통해 한 시대의 문화를 읽어내고, 건축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시와 노래, 영화와 그림 속에서 묘사된 집부터 시작해, 그 속에 사는 여성의 모습, 아파트에 열광하는 사람들 등 집이 숨기고 있는 다양한 표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야기 장자 철학 남화원의 향연

송항룡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324쪽 | 값 12,000원

40여 년 동안 노장사상을 연구해 온 성균관대학교 송항룡 교수가 장주莊周의 사상을 짙막한 이야기 형식으로 묶어낸 책이다. 서른 개가 넘는 짧은 이야기들은 서로 맞물려 이어지면서 흥겹고 신명나는 만담 또는 재담으로 읽힌다.

신현준의 WORLD MUSIC

신현준 지음 | 웅진닷컴 | 310쪽 | 값 15,000원

저자는 다양성의 허울을 뒤집어 쓴 문화적 편식현상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향의 음악듣기를 제시한다. 대안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제3세계 현대적 민속 음악', 즉 '월드 뮤직'이다. 동유럽의 집시 음악, 아프리카의 레게, 쿠바 음악, 브라질의 삼바, 아르헨티나의 탱고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